

# 대형증권사 ‘깜짝 실적’ 기대… 중소형사는 ‘신용등급 강등’

상위 5개사 2분기 영업익 1.2兆  
전년 동기비 24.09% 증가 수치  
중소형사, 부동산PF 우려 고조  
대형사도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1분기에 이어 2분기에 대형 증권사들의 ‘깜짝 실적’이 기대되고 있다. 반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소형사들은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등 부진한 실적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1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 중 실적 전망치가 제시된 상위 5개사(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한국금융지주)·NH투자증권·삼성증권·키움증권)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1조258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조141억원)보다 24.09% 증가한 수치다.

4월까지만 해도 해당 5개 증권사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1조358억원에 불과했다. 당초 전년 동기보다 2.1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긍정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의 심화되는 양극화를 보여주는 이미지.

적인 브로커리지 수익률과 함께 영업이익 예상치도 불어난 것이다.

증권사별로는 미래에셋증권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2분기 영업이익은 1567억원이었으나 올해는 2328억원이 추정되면서 약 48.6%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키움증권(38.9%)과 삼성증권(31.1%)도 전년 대비 2분기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증권사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

기대감이 오르는 상황이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2분기 증권사들의 거래대금은 1분기 대비 2.3% 감소에 그치면서 생각보다 상당히 양호한 업황을 보여 주고 있다”며 “국내의 주식시장 호조에 힘 입어 동성 이탈이 제한적이고, 특히 해외주식거래 증가가 양호한 브로커리지 손익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2024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

싱(PF) 및 해외부동산펀드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도형 IBK증권 연구원은 “증권사의 부동산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대비 대손충당금 및 준비금 적립 비중은 브릿지론 기준 17% 수준이며 브릿지론 비중에서 중후순위 비중이 40%인 점을 감안할 시 추가적립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 브릿지론 중 고정이하 비중은 25% 수준이며 만기가 대부분 2024년에 도래하기 때문에 전체 증권사 충당금 적립비중은 20%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커버리지 증권사의 국내 부동산PF 익스포저는 대체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자기자본 규모에 따른 증권사들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수수료수익이 중투사는 22.0%, 자기자본 1~4조원 대형사는 8.2% 늘어난 반면, 중소형사는 7.0% 감소했다. 브로커리지 수익으로 실적을 만회하고 있는

대형사들과는 달리 중소형사들의 부동산PF 우려는 고조되고 있는 셈이다.

윤재성 나신평 수석연구원은 “증권사 규모별로 실적 개선 수준의 차별화가 나타났다”면서 “중소형사의 경우 브릿지론 등 고위험 부동산 PF 익스포저 중심으로 건전성 저하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나신평은 이달 SK증권의 단기신용등급을 ‘A2+’에서 ‘A2’로 강등했다. 더불어 다음 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기업신용등급, 선순위 채권 등급 등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대형사 중에서도 하나증권의 선·후순위 채권의 등급전망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신용등급 강등이 대형사로 전이할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능성 자체는 적을 수 있지만 아직 부동산 관련 이슈가 끝나지 않았고, 밸류업 훈풍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어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코스피 전망 ‘맑음’에도 인버스 상품 매집

투자자 예약금, 약 3개월 만에 최저  
코스피 최고치에도 차익 실현 추구  
증권사 “주가 상승세 지속 전망”

개인투자자들이 연중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국내 시장의 상승 흐름과는 다르게 차익실현을 추구하면서 지수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코스피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4일 투자자 예약금은 53조4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월22일 이후 3개월 반 만에 최저치다. 투자자 예약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 계좌에 맡겨두거나 주식을 매도한 뒤 찾지 않은 돈으로 주식 시장에서 ‘대기성 자금’으로 불린다. 투자자예약금 감소는 그만큼 시장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은 이달에 코스피 시장에서 3조7598억원어치 팔아치웠다. 이달 들어 코스피가 2800선을 뚫고 29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으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같은 상승세가 일시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2867.38)보다 0.61포인트(0.02%) 오른 2867.99에,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60.42)보다 1.87포인트(0.22%) 하락한 858.55에 거래를 종료했다. /뉴시스

적인 현상으로 보고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주식 매도를 통해 마련한 자금 중 일부는 미국 증시로 유입됐다. 지난 9일까지 국내 투자자들

은 1억9040만달러(약 2637억원)어치의 미국 주식을 사들였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 하락을 점치며 인버스 상품을 매집했다. 이달 코스피200 선물지수를 반대로 2배 추종하는 ‘KODEX 200선물인버스 2X’를 1974억원어치 매수한데 이어 코스피 하락으로 수익을 보는 ‘KODEX 인버스’도 328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이와 달리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KODEX 코스닥 150레버리지ETF(1788억원), KODEX 레버리지(1086억원), KODEX 200(251억원) 등은 순매도했다.

이 같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형태와는 달리 증권사들은 코스피 지수에 대해 밝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기업의 호실적과 금리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주가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BNK투자증권, 대신증권 등은 하반기 코스피 상단을 3200까지 제시했으며,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은 3150, NH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은 3100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원관희 기자 wkh@

## 올해 상반기 펀드 순자산 98.1兆 늘어

금투협 ‘상반기 펀드시장 동향’  
주식형·채권형 펀드 성장 영향

올해 상반기 펀드 순자산 총액이 98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자산 펀드를 중심으로 자산이 유입된 영향이다.

10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펀드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체 펀드 순자산은 106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98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통자산에 투자하는 주식형(18조6000억원)과 채권형(18조7000억원) 펀드의 성장이 두드러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해외주식형 펀드에 7조9000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되며, 순자산총액은 전년 말보다 39.4% 늘어난 5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인공

지능(AI) 열풍 속 반도체 관련주의 가치가 크게 올랐으며,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기가 비교적 연착륙하고 있어 투자심리가 견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14조4000억원이 순유입되며, 순자산총액은 전년 말 대비 17조3000억원(13.1%) 증가한 14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에 따라 국내 금리도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된 데 기인한다.

주식형·채권형 공모펀드는 ‘2020년 말 대비 순자산총액이 각각 35조4000억원(49.0%), 24조7000억원(74.1%) 성장했다. 하지만 ETF를 제외하면 주식형 공모펀드는 2조원(5.0%) 감소했고, 채권형 공모펀드는 1조3000억원(5.0%)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원관희 기자

## 대목 맞은 게임株, 반등 기대감 ‘솔솔’

대어 IPO, 방학, 신작 등 호재 연이어

장기간부침을 겪던 게임주가 하반기 신작 발표와 ‘소프트업’의 코스피 상장으로 주가 반등의 기회를 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게임이 ‘여름방학 수혜주’로 꼽혀 게임주에 대한 투자심리도 회복되면서 게임사들의 주가도 상승하는 모습이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게임 TOP 10 지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63.12나 오른 678.26을 기록했다. 올 들어 가장 높았던 종가인 696.25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이번 달 10거래일 동안에는 이틀만 소폭 하락하고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KRX 게임 TOP 10 지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종목 중 게임 산업군 내 대표기업 10개 종목을 구성종목으로 하는 지수다.

게임 업종은 지난해 10월 4일 바닥(516.45)을 찍고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증권가에서도 하반기부터 신작계

임이 나오고 ‘하반기 IPO대어’로 꼽히는 시프트업이 상장하면 업황 회복이 예상된다. 또한 이용시간이 급증하는 여름 방학과 휴가철에 힘입어 ‘여름 수혜주’로도 분류되고 있다.

이 밖에도 올해 하반기 게임사별로 다양한 신작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점도 호재다. 올 상반기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로 상승세를 탄 넷마블은 ‘일곱 개의 대죄 키우기’, ‘킹 아서: 레전드 라이즈’ 등 다수의 게임 출시를 예고했고 위메이드, 네오위즈, 크래프톤 등도 하반기 신작 발표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미술품·한우 등 조각투자 모범규준 제시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작성 시 참고

‘조각투자 산업’이 미술품에서 한우로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행자들이 반드시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할 내용을 담은 모범 규준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업자가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만들었다고 10일 밝혔다.

‘조각투자’는 미술품·부동산·음악저작권·한우 등, 유·무형의 투자 대상 자산을 여러 지분으로 쪼개 불특정 다수가 투자할 수 있도록 증권화한 것을 뜻한다. 지난해 12월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최초 효력이 발생된 이래 지금까지

총 7건(72억7000만원 규모)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됐거나 발행될 예정이다.

그간 조각투자는 기초자산을 보관하거나 청약 및 배정하는 절차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무에선 조각투자 사업자가 신고할 때 신고서 정정을 반복하고 발행일정이 지연되는 일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마련했으며, 이는 지난 2022년 4월 발표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의 모범 사례집이다. ▲기초자산 ▲내부통제 ▲청약·배정 ▲투자자 권리 보호 등 중요 항목별 원칙, 세부 사항뿐만 아니라 구체적 작성 예시를 제공한다. /허정윤 기자